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마지막 현장실사

11~14일 주상절리대·화순 공동화석지 등 둘러봐

최종 인증 여부 내년 4월 결정... 실사작업 결과 주목

국립공원 무등산 일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결정하는 마지막 실사가 오는 11~14일 진행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9일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현장실사 위원 2명이 11일부터 4일간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방문해 운영 전반을 현장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장실사 위원인 안드레아스 쉴러(독일), 사리나(중국) 등 2명이 무등산 주상절리대, 화순 서유리 공동화석지, 담양 죽녹원 등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지질명소와 역사문화명소를 둘러본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질교육, 관광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 여부,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실사 첫날인 11일 오후에는 무등산권지질공원 중심사지구 탐방안내센터에서 무등산권역의 학술적 가치와 운영 현황 등을 브리핑하며 12일에는 무등산 주상절리대, 충효동 점도광물산지, 지오빌리지(북구 청풍동) 등을 살펴 13일에는 고인돌 유적지, 적벽 등 화순군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어 14일에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대나무박물관 등 담양군 중심으로 진행되고, 추가 문답 평가를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현장실사가 끝나면 올 말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협의회에서 서류심사와 이번

현장실사 결과를 심사해 인증 권고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인증 여부는 내년 4월께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대한지질학회 용역 추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IGGP) 예비실사 등을 마쳤으며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면적은 광주와 담양, 화순 일부 등으로 총 1051.36㎢다.

지질명소는 무등산 서석대, 서유리 공동화석지 등 20곳, 역사문화명소로 아시아 문화전당, 죽녹원 등 42곳이 있다. 지질공원은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광주시는 그동안 푸른도시사업소 지질공원팀과 지질학 분야 전문가인 전남대학

교 노열·이장열 교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장실사 위원인 이수재·전용문 박사 등으로 실사지원팀을 구성하고 현장실사에 대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지정된 제주도도 있고 청송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심사를 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 33개국 120곳에 세계지질공원이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립공원 무등산 일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사실상 결정하는 실사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찾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후보지 선정위원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日 기타큐슈 항공기 운항 논의... 교류 활성화

광주시와 일본 기타큐슈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9일 “운장현 시장이 지난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기타큐슈를 찾아 기타타시 켄지 시장과 면담을 가졌고, 이번 방문에서 운 시장은 먼저 최근 발생한 규슈지역 호우 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켄지 시장과 양 도시 간 항공기 정기편 운항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확산과 관광객 유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운 시장은 양 도시 간 교통·문화정책 등 시정 전반에 걸친 교류 확대 추진

과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MOU 도시’에서 ‘자매도시’로 상향해 교류하는 내용도 협의했다.

운 시장은 다케오 시립도서관도 둘러봤다. 다케오 시립도서관은 서점, 카페 등 상업시설을 접목한 혁신적인 운영으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은 100만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22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는 추가 건립중인 2개관을 포함해 총 10개관을 확충, 도서관을 32개로 늘릴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에 ‘빛가람 콘텐츠 타운’ 들어선다

전남도·시·8개사 투자협약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빛가람 콘텐츠 타운’이 들어선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콘텐츠 분야 전문 기업 8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14개 기업에 이어 이번엔 8개사와 협약을 체결, 총 22개 관련 기업

을 유치하게 됐다. 지역 청년들에게 3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빛가람 콘텐츠 타운 조성으로 2022년까지 100개 기업 유치, 1500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지난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하는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나주에 유치해 콘텐츠 기업 성장 기반도 갖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양성평등 앞장 대통령 표창

전남도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양성평등정책에 앞장섰다는 의미다.

성별(性別)영향평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이나 사업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해 양성평등 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최근 3년간 평가 실시

104.9%포인트 향상, 성인지 연계율 37.8%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양성평등 정책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담양 공무원 교육 이수율을 전년대비 16%포인트 끌어올려 43.5%를 달성하는 등 실무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예결위 “파행만은 막자”

광주시내버스 시급 2.45% 인상

양당 5명씩 참여 방안 논의

민주-국민의당 막판 협상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이 막판 협상에 나섰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결위원을 기존보다 1명 늘려 양당이 5명씩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존 예결위는 9명으로 그동안 민주당 5명, 국민의당 3명, 민중연합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이번 예결위에서 10명으로 늘려 민주당 5명, 국민의당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는 안을 협의하

고 있다.

그동안 과반을 강력히 요구했던 국민의당이 한 발 물러나 양당 동수와 예결위원장직도 민주당이 맡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협의에 따라 그동안 파행됐던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 심사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이번 예결위 파행은 시의원 22명 중 9명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예결위원 과반을 요구하면서 빚어졌다. 시의원이 12명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양당 대립이 격화됐다.

추경안 심의를 위해 민주당이 예결위 구성에 앞서 상임위를 단독으로 강행하자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단협 5개월만에 타결

광주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5개월여 만에 극적 타결됐다.

광주시는 9일 “시내버스 노사가 교섭 끝에 지난 8일 시급 2.45%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호봉별 시급 대비 2.45% 인상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임금인상폭을 놓고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노사 자율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를 했다.

앞서 광주지역버스노조는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961명 투표, 찬성 606명, 반대 347명, 기권 8명(찬성률 63%)으로 타결을 이뤄냈다.

운장현 광주시장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주신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노사가 힘을 합쳐서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도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민간이전사업 ‘예산 일괄 삭감’ 효과 적고 부작용만”

문상필 광주시의원 지적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관행화된 ‘예산 10% 일괄 삭감’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을 부풀리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100개의 민간이전 사업 예산을 본예산 대비 16억6000만원 감액했다.

문화관광체육실의 경우 그중 49개 사업에 대해 사업당 500만원에서 1억3000

만원까지 모두 8억5000만원을 줄였는데 전체 감액의 50%나 차지했다.

사업별 감액률도 10%, 5%, 3% 등 천차만별이고 감액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어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문상필(민·북구3)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예산 10% 일괄 감액 정책인데 지금은 지자체가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철저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원칙이며 일괄감액된 예산도 전부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